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출장기간 : 2019. 8. 29.(목)~ 9. 6.(금)/ 7박 9일

출 장 지 : 프랑스 (파리, 낭트, 리옹, 그르노블)

출 장 자 : 강영주, 정경석 책임연구위원

I**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19. 8. 29.(목)~ 9. 6.(금)/ 7박 9일
- 출장국방문도시 : 프랑스 (파리, 리옹, 그르노블)
- 주요 방문기관 및 시설
 - 그르노블 GIANT(CEA, 그르노블 공과대학, 그르노블 시청)
 - 파리 라빌레트, 라데팡스, 파리도서관 재개발 지역
 - 리옹 시청, 리옹 공원 및 재개발 지역
- 연수자 명단 및 개인별 주요임무

소 속	직	성 명	주요 임무
미래전략실	실장	강영주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수도권 경제 파급효과 및 인구 분산 효과, 국가적 경쟁력 변화 검토
도시기반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정경석	낭트, 리옹 등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의 도시 공간 최적해 검토 절차 파악

- 출장목적: 혁신도시와 경쟁거점 비교분석을 위한 사례 조사
우리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논리개발 및 향후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략방안 마련을 위해 국외연수 추진

○ 여행동기 및 배경:

프랑스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1991년부터 2003년까지 7차례에

결쳐 약 270개 기관(34,000명)을 8개 지역중심도시에 분산. 특히 파리에 집중된 기술, 과학, 연구, 교육관련 공공기관, 산업·상업적 성격의 공공기관, 공공기업 및 준국영회사, 공공시설, (물자)지원기관, 연구소와 교육기관들이 주로 선정되었음.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 및 균형발전추진에 따라 리옹, 마르세이유, 보르도, 스트라스부르 등 지방 중심도시가 크게 성장하는 효과가 발휘되었고, 파리의 집중문제 해소에 큰 기여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를 추진하는 우리시는 공공기관 중 과학 기술 연구기관, 금융기관, 기타 철도관련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혁신클러스터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프랑스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방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고, 유사한 우리나라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추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함.

특히 국내 혁신도시 추진이 지방 거점도시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과도하게 분산에만 초점을 두어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 혁신클러스터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함. 동시에 우리나라의 혁신도시 시즌 2 정책과 유사한 프랑스의 ‘경쟁거점 정책’과 프랑스 지방정부의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단순한 공공기관의 이전에서 벗어난 향후의 혁신도시의 혁신클러스터로의 발전을 위한 전략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특히 경쟁거점 정책의 추진 주체인 국토지역개발기획단(DATAR)와 경제재정산업부 등 중앙정부의 역할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레이옹간의 역할 분담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

금번 프랑스 출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혁신도시와 경쟁 거점 정책¹⁾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1) 프랑스는 이 정책을 통해 산업의 국제적 특화·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적 지명도를 갖는 새로운 산업의 육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의 기업유인 능력을 제고하고 산업 이전에 대응하고자 함.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서를 접수하여 지원을 추진. 기존의 경

프랑스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혁신도시와 유사한 ‘경쟁거점(pôle de compétitivité)’ 정책을 2005년부터 추진. 두 정책 모두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기업, 교육기관, 민간/공공연구기관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유사. 또한 이를 지역발전과 국가 경제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유사하고, 사업 초기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우선 지역에 혁신기반을 다지는 부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점 또한 유사함.

다만, 프랑스의 경쟁거점 정책은 지자체 뿐 아니라, 기업, 교육기관, 민간/공공연구기관, 지자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공모방식을 취하였고, 추진주체를 범부처적 성격의 국토개발장관회의와 DATAR에서 주관하도록하고, 경제/재정/산업부, 하부구조/교통/국토계획/관광/해양부가 선도적으로 참여토록 함. 공모방식을 취하고, 사업신청서를 심사함에 따라 경쟁거점으로서의 성장가능성과 지역자원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사업초기부터 면밀히 검토. 이에 반해 우리의 혁신도시 정책은 국토균형발전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각 지역별 혁신도시를 안분한 결과, 혁신도시별 성과에 큰 차이를 발생

쟁거점을 조성하거나 기존의 산업지역을 경쟁거점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2005년에서 7,000억원 이상을 매년 지원

경쟁거점 정책의 추진 주체는 국토지역개발기획단(DATAR)과 경제재정산업부. 프랑스 정부는 경쟁 거점 지원시 경쟁거점의 종합전략, 지리적 범위, 경제와 혁신계획의 현황, 거버넌스 방안과 추진체계, 구체적인 협력 사업 등을 요구.

특히 프랑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레지옹의 역할이 경쟁거점의 성공적 발전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레지옹이 지자체와 경쟁거점, 지자체와 국가와의 긴밀한 연계와 효율적인 협조역할을 하도록 유도

범부처적 성격의 국토개발장관회의와 DATAR가 정책을 주관하나, 개발계획의 수립과 추진은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주체가 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추진

프랑스의 경쟁거점은 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 필요성에서부터 출발했으나 경쟁거점의 물리적 하부구조 확충보다는 관련 주체들을 묶는 파트너십, 거버넌스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있음

금번 출장은 이러한 유사점과 차이를 이해한 위에서 추진되었으며, 이해를 위한 자료(타 연구자의 조사자료 및 정부 발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는 별도 문서로 첨부하였음.

○ 출장 일정:

월일 (요일)	도시	업무수행내용	비 고
8/30(금)	파리	라빌레트 과학관, City of Science and Industry 방문(과학기술기관 이전에 따른 파리의 영향)	없음
9/2(월)	파리 주변지역	라데팡스 방문 재개발을 통한 금융중심지 조성 사례 견학, 그랜드 아치 등 새로운 역사적 조성물 사례 및 도로 지하화 등 친환경적 개발 사례 견학	라데팡스
9/3	리옹	리옹혁신도시청 방문 강: DATAR 경제재정산업부, 레지옹간의 역할 분담내용 파악 정: 낭트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역의 공간 구성 및 공간 최적해 도출 절차 인터뷰	리옹시 담당자 그르노블 CEA
9/4	그르노블	그르노블 혁신클러스터(그르노블공과대학) 방문 강: 가속기를 중심으로한 혁신클러스터의 활동 주체 검토 정: 가속기를 중심으로한 도시구조 구성	없음

* 당초 낭트 방문예정이었으나, 낭트 지역 레지옹 및 DATAR관계자와 일정 조율이 불가하여 일정을 취소하고, 파리의 라데팡스 지역을 견학.

* 스위스 제네바는 리옹 및 그르노블 견학 시간이 예정보다 장기간 소요된 관계로 취소하고 리옹 및 그르노블대상만을 집중적으로 검토



○ 출장 기대 효과

대전시 혁신도시 조성 논리 개발(거점 도시에 혁신도시를 조성해야만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성장가능함을 주장. 특히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이전 및 집적 필요성을 주장)

혁신도시를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방 및 정부의 역할을 검토하여 향후 대전시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시

우리시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가속기를 중심으로한 혁신클러스터 조성 가능성을 타진하고 향후 활성화 대안 제시

II

방문도시 검토

1. 역사의 도시, 현대의 도시 파리

○ 큰도시의 경쟁력은 거점 기능과 사람에서

파리의 인구는 파리 주변부 까지 합쳐서 250만명, 한해 방문자 수는 3200만명. 파리 시내에 수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고 있었음. 참고로 뉴욕의 인구는 약 850만명, 방문인원은 6500만명. 우리시의 인구는 약 150만명, 대전방문의 해 목표 인원은 500만명. 우리 시의 인구 규모로 봤을 때 800~900만명이 방문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심 서비스기능의 강화와 함께, 문화예술/관광자원의 확충이 필요. 대도시의 중심기능은 금융과, 관광, 중심서비스 등으로 보임. 인프라 (공항/버스/도로/철도) 또한 중요하나 기능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을뿐 반드시 뛰어난 인프라가 필요한 것은 아닐 듯. 파리의 지하철은 다양한 공공철도와 사철이 혼재하고 신식과 구식이 혼재. 심지어는 손으로 손잡이를 돌려야만 문이 열리는 차량도 존재



호텔인근 세느강의 지하철역/

리옹역 인근 호텔

공공기관 이전 초기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이전으로 파리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파리는 여전히 경쟁력있는 매력적인 도시임.

우리 공공기관의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KIST, 원자력의학원 등의 이전과 함께 서울내 대학의 이전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파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표정과 의복, 행동은 거침없는 자유를 표상

파리의 대중교통에는 노인석이 없고,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 또한 자주 보기 힘들었고, 권위의식과 예의범절보다는 자유로움이 묻어나고 있었음. 패션은 100인 100색, 거리에서도 교통질서 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프랑스 문화와 예술의 토대가 되지는 않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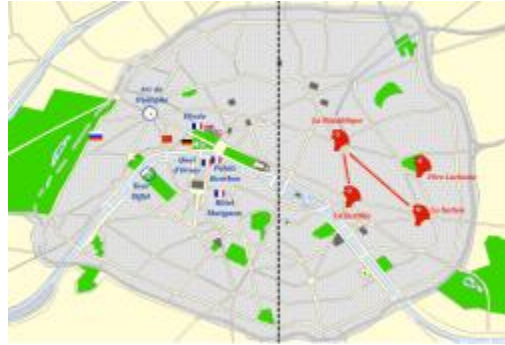


퐁피두 센터 인근 광장에서 햇빛과 예술활동을 즐기는 사람들

○ 역사가 자원으로 현재는 역사로

파리의 특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음. 첫째는 도시의 달팽이구조, 둘째는 동서의 권력임. 파리의 도심구조는 세느강을 끼고 1구부터 20구까지 시계방향으로 달팽이 형태로 발전하였고, 이에따라 역사자원도 오래된 구역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구조임. 동서를 구분하여 동편에는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과, 각국 대사관 등 행정관서로 대표되는 권력기관이 모여있고, 서편에는 공화국 광장, 바스티유광장 등 시민 혁명의 역사가 위치.



셋째는 옛것과 새것의 공존임. 역사가 있는 도시는 시간의 축적에 의해 가치를 더해가게 되나, 파리는 그 예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파리 역사의 시작인 노트담 대성당 인근 시테섬에 남아있는 거미줄처럼 좁은 길들은 로마시대부터 있던 생자크 길로 중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음. 노트담 대성당 화재 이후, 우리가 방문한 시점에는 그다지 관광객도 방문하지 않고 있어,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감수하고 있는지 혹은 극복하고 있는지 궁금.



세느강에서 본 노트담 대성당 / 화재로 대규모 진행 중

시간의 가치를 담은 많은 역사자원과 함께 현재를 역사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추진 중임. 1977년 개장한 풍피두 센터의 건축 방식은 지금으로 보면 크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방문당시 길게 늘어선 줄이 이미 역사가 되고 있음을 증명. 이 지역이 도심 역사적 건물속에서도 빈민가로 전락되었던 것을 재개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고, 풍피두센터는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 누구도 빈민가 시절의 모습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임. 풍피두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위치하고 있고, 예술은 현재와 역사, 그리고 자원을 잇는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



모든 배관과 설비가 밖으로 돌출된 풍피두 센터

마찬가지로 현재와 역사, 그리고 자원을 잇는 예술을 대표하는 곳으로 오르세 미술관이 있음. 인상파 작품을 주로 전시하는 오르세 미술관은

고대와 중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루브르 박물관과 대조되고,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퐁피두 센터와도 대비되는 자원으로 예술을 통해 근대를 자원화한 사례로 볼 수 있음.

예술은 아니라 문화를 통해 현재를 역사로 만드는 예로 미테랑 국립 도서관을 살펴볼 수 있음. 파리국립도서관인 미테랑 도서관은 파리 최대의 규모로 2만평이 넘는 부지를 차지하고 있음.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 건축물로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에 의해 설계. 책을 펴 놓은 듯한 건물 4개가 직사각형의 모서리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세워져 있음. 4개의 도서관은 각각 법, 숫자, 문자, 시간을 상징하고, 해가림 시설이 두터운 원목으로 되어있어 빛 조절 뿐만 아니라 습기조절의 역할을 한다고.... 도서관은 각각 22층으로 되어있고, 이 건물들 안에는 1200만 권의 서적과 35,000석의 열람실이 배치되어 있음. 지하는 도서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각종 전시회와 공연을 개최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 지하 도서관 중앙 건물 사이에는 참나무 숲이 만들어져 있음. 사람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공기와 바람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임. 프랑스를 대표하는 문화공간, 그리고 도서관으로 이미 역사와 자원이 되어 가고 있음.



지하도서관과 4개의 지상 도서관

파리 어떠한 궁전보다도 유명하고 파리를 대표하는 상징이 된 에펠탑 또한 디자인이 역사와 자원이 된 사례임.

역사속의 건물 외에도 라테팡스에 조성된 그랜드 아치, 라빌레트 지역의 라빌레트 공원 등은 재개발을 통해 역사와 현대를 결합하고, 현재를 역사속에 남길 자산으로 만들기 위한 스토리와 디자인을 담고 있음



라테팡스 재개발을 통해 조성된 금융가. 모든 도로는 지하로 조성되어 있고 지상부는 건물과 공원 조형물 등으로 구성/ 조형물과 그랜드 아치-그랜드 아치에는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어 역사와 실용이 공존

도심의 도살장과 정육점이 있던 낙후지역에 조성된 라빌레트 공원은 21세기형 도시공원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세계의 유명한 건축가들을 참여 (36개국 건축가들의 471개 작품 출품)시켰으며, 베르나르 추미가 해체주의 철학자 자크 테라다의 해체주의 철학을 도입한 디자인으로 우승하여 설계됨.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폴리 조형물이 곳곳에 설치되어 역사가 되고 있으며, 역사적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 또다른 역사가 되어 가기 위해 숙성되고 있음.



라빌레트 안내관 폴리 / 라빌레트 과학관

그 외에도 라 샤펠과 빌레트 공원 사이, 13,000m²에 이르는 삼각형 모양의 지역에 조성된 친환경 구역 포트 드 라 샤펠.

파리 북부의 과거 산업용 난방기구 제조공장으로 현재는 버려진 공간에 들어선 라 쿠르뇌브 문화 제작소 등은 파리 광역 친환경 개발 프로젝트로 현재를 역사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는 곳이라 할 만함

2. 혁신도시 리옹

○ 파리보다 프랑스다운 색채를 지닌 도시

인구규모로는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약 50만명)로 주변지역을 합치면 200만이상으로 프랑스 제2의 도시임. 지리적으로는 프랑스의 중부, 동부, 북부 각 지역과 근접하면서 이태리, 스위스로 가는 길목에 위치.

이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는 프랑스 최고의 음식 도시로 전통적인

식당이며 주점인 부송이 현재도 성업중이고, 각종 식음료관련 대학 및 교육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임. 리옹 출신 인형 제조업자가 최초로 고안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게 된 기놀 인형극, 좁은 거리와 트라블 양식으로 독특한 감성을 자랑하고 있음.



좁은 거리로 대표되는 트라블 양식의 거리



빛의 도시답게 저녁이면 깨어나는 거리

리옹 빛 축제는 유럽 3대 축제에 들만큼 유명하고, 축제를 차치하

고서도 역사적 건축물과 손강, 론강 주변으로 빛나는 야경만으로도 빛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과시

빛 축제의 유래는 1600년경부터 이미 산업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어 위생환경이 좋지 않던 리옹시에 1852년 도시 전역에 페스트가 퍼져 극심한 피해를 보게 되었음. 이에 리옹시민은 페스트가 도시를 피해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고, 노트르담 드 푸르비에르 대성당 옆 종탑 위에 성모 마리아 상을 세웠으나 심각한 홍수로 강이 범람하여 준공식을 12월로 미룰 수 밖에 없었고, 이날 기적적으로 날씨가 개어 무사히 공사가 완공된 것을 기념하여 창가에 촛불을 밝힌 것이 유래가 되어 매년 12월 빛 축제를 개최하게 됨



○ 교육과 의학산업 중심의 혁신도시

리옹의 경쟁력은 단순히 역사자원에서 생겨나는 것은 아님. 수도권 파리지역의 성장과 함께 리옹지역의 쇠퇴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리옹은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고등사범학교 등 교육기관이 이전하면서 리옹시는 학생 유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 교통비, 주거비, 기타 생활비를 저렴하게 유지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 되었고,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가 되었음(2017년 프랑스에서 제일 공부하기 좋은 도시 1위에 선정되었고, 최근 10년 3만명이상 학생수 증가).

Comparing the cost of living between Paris and Lyon



Comparing the cost of living between Nice and Lyon



리옹의 물가는 소비재는 파리보다 20% 저렴하고, 주거는 니스보다도 37% 저렴하며, 음식료품 또한 저렴. 해외 유학생까지도 주택보조금 (주거비의 절반 정도) 제공.

리옹의 도시구조는 손강과 론강이 만나는 만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풍부한 역사자원으로 구성된 지역과, 도심 쇠퇴구역 재개발을 통해 성장한 신도심지역이 혼재된 구조. 산업은 역사적으로 비단교역에서 시작하여 직물산업 및 유통, 화학/섬유/야금인쇄술 등이 발달하였고, 현재는 혁신도시 조성이후 대학 등 교육기관과 의학산업의 중심지임. 동시에 빛 축제로 주목을 받게 된 후 빛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에도 주력

18세기 무렵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리옹의 견직물 산업은 방적기의 발명(1804년 리옹사람인 자카르에 의해), 수공업체제에서 대규모 공장 체제로의 변화, 지역 분산화, 1889년 인조견의 등장으로 내리막길을 걸었으나 오늘날은 순수화학(견직물 염색의 필요에 의해) 분야와 제약회사로 발전하였고, 섬유 분야는 최첨단 산업으로 고도화 하면서 재성장.

도심의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주변지역들의 의견을 반영한 도심재개발을 추진. 2024년까지 1조 5천억을 들여 스마트도시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인 파르디외 지역 재개발 사업에는 우리나라의 KT도 참여



리옹시 파르디외 역 주변 재개발을 통한 신산업거점지구의 상징물인 파르디외타워와 리옹은행. 파르디외역을 중심으로 신도심을 형성하고 있으며 고층의 건물과 세계적인 기업들이 집적하고 있음. 적색으로 보이는 역사지구 뒤로 보이는 몽당연필 모양의 건물이 파르디외타워, 그 옆 높은 건물이 리옹은행으로 파리에서 출발한 테제베 열차가 정착하는 리옹시 파르디외 역 주변의 대표적 건물임(크레용이라는 애칭으로 불림)

파르디외 역은 파리와 리옹을 연결하며 평일 약 10만명의 프랑스 주요 노선임(연간 2,900만명). 역으로부터 연계되는 교통수단으로 외곽열차(RER), 버스, 택시 등이 있음. 철도역사는 지상부의 TGV 정차역과 함께 복합적으로 개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입지하고 있음 파르디외 역세권 개발은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프랑스 국토

개발청(DATAR)에 의해 주관. 리옹시는 구도심의 역사적 시가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개발과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파르디외 지역을 선정하고, Lyon의 업무시설 대부분을 이 지역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유도

특기할 점은 재개발시 토지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전의 가격으로 해당 토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ZAD제도를 도입한 점과, 리옹시가 Part-Dieu 역세권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토지를 수용하고, 이를 개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민간에게 불하하여 개발을 유도하는 ZAC제도를 도입한 점 등이 있음

- ※ ZAD : Zoned'Aménagement Differe or Deferred Development Zone
 - ZAD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SOC 투자로 인한 토지가격의 급등을 멈추기 위하여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급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가격으로 해당 토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Part-Dieu의 철도역이 개통에 따른 토지가격의 증가분을 지방정부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ZAC : Aoned' Amangement Concerte, or Concerted Development Zone
 - ZAC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되어질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대규모 재개발 또는 신개발에 적용할 수 있음. 지방정부는 Part-Dieu 역세권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토지를 수용하고, 이를 개발계획에 따라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민간에게 불하하여 개발을 유도할 수 있었음.



파르디외 역 주변의 주거시설

- 주거시설은 Part-Dieu TGV 복합역사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행권내에서 철도역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대부분의 주거용도는 5층 이상의 고층건물임

파르디외 역 주변 이외에도 대표적인 도심재개발사례로 리옹 콩플뤼앙스 지역이 있음. 론강과 손강이 만나는 합류지점은 1950년대부터 섬유산업이 쇠퇴하면서 도시재생프로젝트의 대상이 되었고, 1998년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이 현재도 진행중임.

리옹 도심의 수많은 역사자원을 제치고, 도시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 오렌지 큐브는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눈길을 끌 아이콘적인 건물을 만들기 위해 당시 재생사업을 추진

하던 부동산회사의 본사사옥으로 디자인되었고, 2011년 완공됨.



리옹 콩플뤼앙스의 오렌지 큐브 / 콩플뤼앙스 지역(사진 중앙)

리옹시는 친환경 발전을 위해 도심 곳곳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리옹시청은 역사적 건물로 보수 중이었음.



도심 곳곳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리옹 시청 방문예정이었으나 공사중으로 일반인 출입 통제

○ 주변지역까지를 포함한 광역 연계협력의 모델

도심재개발 추진을 위해 주변지역까지를 포함한 수요조사를 실시. 산업육성계획 또한 주변 지역까지를 포함한 의견청취를 통해 수립 및 추진(섬유산업 육성/빛축제 개최/콩플뤼언스 도심 재개발 등이 대표적 사례임)

3. 가속기 중심 과학 도시 그르노블

○ 가속기를 중심으로 조성된 과학기술도시

프랑스 동남부 론알프 지방에 있는 도시이다. 이제르주의 주도이며, 인구는 157,900명(2005년 기준)



그르노블시 위치

알프스에 둘러싸인 분지도시로 수려한 자연환경과 최첨단 나노기술 도시 Aristide Bergès이 1878년 알프스 산맥의 높은 수위 차를 이용한 수력발전을 그르노블에 도입하면서 주변에 많은 화공, 제철, 전자를 주축으로 하는 산업단지가 형성됨

산업단지가 발전함에 따라 고급인력의 수요가 늘게 되었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기 단과대학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단과대학을 늘려 컴퓨터, 재료, 물리, 기계, 제지, 통신 공학을 아우르는 Grenoble 공과대학(Grenoble INP)출범. 그르노블 공과대학은 시내 전체에 분산배치되어 시 전체가 공과대학인 것 같은 느낌(CEA 안내데스크에서 그르노블 공과대학 위치를 묻자 주저하면서, 너무 넓어서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하던 안내원의 설명이 이해가 됨)



그림 31 그르노블 공과대학 로고

- PHELMA : 물리, 전자, 재료
- ENSE3 : 전기, 기계, 환경
- PAGORA : 제지, 생체재료, 공정 ;
- ENSIMAG : 응용수학, 컴퓨터공학, 금융
- Génie industriel : 산업공학, 경영
- ESISAR : 전자, 통신



르노블공과대학 PHELMA 캠퍼스 그르노블 시청 (시청을 hotel로 표기하는 것이 특이)



바스틸 요새위에서 바라 본 그르노블 시 전경
트램노선이 중앙에 직선으로 잘 보이고 있고,
구도시와 신도시가 구분되어 있음



그르노블시의 트램
대전시 트램도입을 위해 주요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트램노선임

○ 그르노블 GIANT

그르노블 GIANT(Grenoble Innovation for Advanced New Technologies: www.giant-grenoble.org/en) 프로젝트는 2007년 발족(연구기관, 유럽 거대과학시설, 교육 기관 등 8개 기관)된 약 1조 8000억 원 규모의 도시개발계획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정보, 에너지, 건강분야에 중점

핵심 응용 분야에 초점을 맞춰진 과학기술 구역과 탁월한 센터들을 통합하여 과학기술개발과 도시발전의 융합화를 목적으로 함
다양한 연구소 및 대학이 집적된 가속기 연관 비즈니스 타운 조성

- CEA, CNRS*, EMBL**, ESRF***, ILL****, Grenoble Ecole de Management*****, Joseph Fourier University, Grenoble Institute of Technology***** 등으로 구성

* The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프랑스 국립과학원

** The 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oratory: 유럽 분자생물학연구소

*** European Synchrotron Radiation Facility: 방사광가속기

**** Institut Laue Langevin: 중성자실험장치

***** 프랑스 경영대학원

***** 그르노블 이공계열 국가연구소

6개 센터 구역으로 구분하여 R&D 중심의 산학연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

- GIANT는 과학자, 교육자, 학생 그리고 산업 사이의 협력을 위해 투자를 하고있으며, 매년 5,000편의 출판과 500개의 특허 등록을 하고 있음
- EPN Science Campus & Large Research Infrastructure : ILL, EMBL, ESRF, PSB 등이 중심
- Basic Research: 3 CNRS labs, LNCMI, Joseph Fourier University, INAC 등이 중심

- GreEn(Grenoble Energie)에서는 2,000명의 연구자와 1,500명의 학생이 100,000m² 연구시설에서 태양에너지, 전기차, 나노기술 안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주력함
- MINATEC은 산학연 클러스터인 유럽 최대 나노기술 연구센터로 그레노블 이공대학과 10여개의 세계적인 기업, 각종 산학연구소가 입주
- NanoBio에서는 나노기술과 생물 및 의학연구를 접목한 연구기관으로 주요 연구분야로 nano-biotechnology, proteomics, biomedical research, bioactive molecule screening, chemistry임
- Manage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은 Grenoble Institute of Technology 캠퍼스를 형성
- 그 외 구역은 산학 협력업체(Siemens, ST 등)가 입주해 있는 가속기 연관 비즈니스타운



CEA정문앞

프랑스 원자력 및 대체에너지 위원회 혹은 프랑스 원자력 및 대체에너지청 (프랑스어: Commissariat à l'énergie atomique et aux énergies alternatives, CEA) (구 프랑스 원자력 위원회 혹은 원자력청)은 프랑스의 공공연구소 중 하나로 원자력 분야 기초과학 및 공학 연구를 담당



그르노블 자이언트 비즈니스타운의 주거 빌딩

그르노블 GIANT는 250만m²의 도시개발 계획을 포함한 가속기 비즈니스 타운을 조성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 개발과 면적 및 개념에서 유사성을 보임.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의 노력으로 세계 유수의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을 GIANT 내에 조성초기부터 집적시키고 있음

	개요	파급효과	집적효과
프랑스 그르노블 GIANT	○그르노블 GIANT (Grenoble Innovation for Advanced New Technologies: www.giant-grenoble.org/en) 프로젝트는 2007년 발족(연구	○GIANT는 과학자, 교육자, 학생 그리고 산업 사이의 협력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으며, 매년 5,000편의 출판과 500개의 특허 등록을 하고 있음	○GIANT의 전 구역은 6개 센터 구역으로 구분되어 R&D 기관이 주로 집적하고 있음 - EPN Science Campus & Large EMBL(European

	개요	파급효과	집적효과
	<p>기관, 유럽 거대과학 시설, 교육 기관 등 8개 기관)된 약 1조 8000억 원 규모의 도시개발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르노블은 제네바에서 직선 100km, 파리에서는 500km 정도 거리에 위치한 인구 15만 5천명 정도의 중소 도시임 - 그르노블프로젝트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는 정보, 에너지, 건강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핵심 응용 분야에 초점을 맞춰진 과학기술 구역과 탁월한 센터들을 통합하여 과학 기술개발과 도시발전의 융합화를 목적으로 추진됨 	<p>○다양한 연구소 및 대학이 집적된 가속기 연관 비즈니스 타운을 조성 총면적 250 hectares(250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A, CNRS*, EMBL**, ESRF***, ILL****, Grande Ecole de Management*****, Joseph Fourier University, Grenoble Institute of Technology***** 등 * The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프랑스 국립과학원 ** The 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oratory: 유럽 분자 생물학연구소 *** European Synchrotron Radiation Facility: 방사광가속기 **** Institut Laue Langevin: 중성자 실험장치 ***** 프랑스 경영 대학원 ***** 그르노블 이공계열 국가연구소 	<p>Molecular Biology Lab), ESRF (Synchrotron가속기, IBS(Institut de biologie Structurale) 등이 중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sic Research: 3 CNRS labs, LNCMI, Joseph Fourier University, INAC 등이 중심 - GreEn(Grenoble Energie)에서는 2,000명의 연구자와 1,500명의 학생이 100,000㎡ 연구시설에서 태양에너지, 전기차, 나노기술 안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주력함 - MINATEC은 산학연 클러스터인 유럽 최대 나노기술 연구센터로 그레노블 이공대학과 10여개의 세계적인 기업, 각종 산학연구소가 입주 - NanoBio에서는 나노기술과 생물 및 의학연구를 접목한 연구기관으로 주요 연구 분야로 nano-biotechnology, proteomics, biomedical research, bioactive molecule screening, chemistry임 - Manage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은 Grenoble Institute

	개요	파급효과	집적효과
			of Technology 캠퍼스를 형성. 그 외 구역은 산학 협력업체 (Siemens, ST 등)가 입주해 있는 가속기 연관 비즈니스 타운

○ 그르노블 GIANT의 특징과 구조

프랑스 그르노블 GIANT(Grenoble Innovation for Advanced New Technologies : www.giant-grenoble.org/en) 프로젝트는 2007년 발족(연구기관, 유럽 거대과학시설, 교육 기관 등 8개 기관)되어 약 1조 8000억 원의 도시개발로 출발

GIANT는 총 250ha의 크기의 부지이며, 과학자, 교육자, 학생 그리고 산업 사이의 협력을 위해 투자를 하여 매년 6,000편의 출판과 600개의 특허 등록을 하고 있으며, 6개 센터 구역으로 구분하여 R&D 중심의 산학 연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프랑스 그르노블 GIANT 프로젝트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정보, 에너지, 건강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핵심 응용 분야에 초점을 맞춰 과학기술개발과 도시발전의 융합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CEA, CNRS(The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 프랑스 국립과학원), ESRF(European Synchrotron Radiation Facility: 방사광가속기), ILL(Institut Laue Langevin : 중성자실험장치), Grenoble Institute of Technology(그르노블 이공계열

국가연구소) 등으로 구성.

정부주도하에 계획되어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연구 성과를 산업에 연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프랑스 그르노블 GIANT의 운영은 산·학·연이 연계된 협의체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

그르노블 GIANT는 EPN Science Campus & Large Research Infrastructure : ILL, ESRF, EMBL, PSB 등, Basic Research : 3 CNRS labs, LNCMI, Joseph Fourier University, INAC 등이 중심이 되고 있음.

ILL은 프랑스, 독일, 영국의 투자로 1967년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매년 1500명 정도가 방문함. (화학, 물리학, 결정학, 생물학 등 기초 연구에 특화) ESRF는 원형 전자가속기로 X-ray 방사선을 활용해서 단백질 결정학, 지구과학, 화학, 물리학 등의 연구에 사용하며, EPN Science Campus 내의 대부분의 연구기관은 ESRF 활용.

EMBL은 1974년 설립되어 21개국에서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관으로 85명 정도의 인력이 상주 중. 단백질 결정학, RNA 단백질, 핵 결정학을 이용한 실험 방법등을 연구. ESRF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연구 진행 중임. GreEn(Grenoble Energie)에서는 2,000명의 연구자와 1,500명의 학생이 100,000m² 연구시설에서 태양에너지, 전기차, 나노기술 안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주력하고 있음.

MINATEC은 산학연 클러스터인 유럽 최대 나노기술 연구센터로 그레노블 이공대학과 10여개의 세계적인 기업, 각종 산학연구소가 입주해 있으며, NanoBio에서는 나노기술과 생물 및 의학연구를 접목한 연구기관으로, 주요 연구 분야로는 nano-biotechnology, proteomics, biomedical research, bioactive molecule screening, chemistry이며, Manage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은 Grenoble Institute of Technology 캠퍼스를 형성하고 있음.
 그 외 구역은 산학협력업체(Siemens, ST 등)가 입주해 있는 가속기
 연관 비즈니스타운.



프랑스 그르노블 GIANT의 입지 배치도

그르노블 자이언트의 주체간 협력 형태는 클러스터 내 가속기 등의
 연구시설을 기업들과 공유하는 형태임



바스틸 요새에서 바라본 그르노블 GIANT

그르노블 자이언트는 GlaxoSmithKline (UK), AstraZeneca (UK & Swe), TOTAL (Fr), Pfizer (UK), Procter & Gamble (UK), Toyota CRDL (Japan), Merck (Ger), Rhodia (Fr), and Unilever (NL)Business 등의 기업들을 클라이언트로 협력하며, Development Office를 운영하여 해당 기업들을 ESRF(방사광 가속기)와 연결함. ESRF 이외에도 입주기업들은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에너지 기술 등 연구분야 별 연구장비 및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음.

<표 5-1> 그르노블 자이언트 지원 연구자원

연구분야	지원 연구자원
나노기술	300-mm silicon platform, 200 mm silicon platform, Design center, Technology resource consortium, Nanocharacterization platform, Inter-university center for microelectronics and nanotechnology
바이오기술	Nanobio platform, Chemistry platform, Clinattec platform
에너지	Battery platform, Fuel-cell platform Prédis Center for Distributed Energy Research consortium for advanced technology

기존 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상으로 한 사업화 지원. 그르노블 자이언트 내의 연구로 출발한 Soitec, Xenocs, PX'Therapeutics, Crocus Technology, Tiempo 등 50개 이상의 하이테크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설립. 스타트업들은 CEA-Liten, CEA-Leti, Grenoble Institute of Technology, ESRF, CNRS, IBS 등의 연구기관의 지원을 받음. 그르노블 자이언트의 협력기관인 인큐베이터들을 통해 연구실에서 사업화까지의 과정을 지원.

<표 5-2> 그르노블 자이언트 내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	지원 사항
GRAVIT	2006년 설립되어 연구실 프로젝트의 사업화를 지원 매년 50개 이상의 잠재 기술이전 프로젝트 확인 및 1/3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
PETALE	2007년 설립되어 사업화 되지 못한 기업들을 지원 프랑스 내외부의 GIANT 입주 희망 기업들을 지원
GEM Entrepre ndre	Grenoble Ecole de Management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 기업가와 혁신프로젝트를 위한 경영 및 마케팅 노하우 지원

기존 기업 유치에 위해서 Grenoble-Isère Economic Development Agency (AEPI)를 운영하여 시설 이용, 자금 조달 등 사업화 환경 지원.

III

시사점

○ 경쟁력 있는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의 연결이 중요

카이스트 이민화 교수의 지적처럼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정책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존재.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혁신도시 정책은 반드시 연결성을 중시해야 할 것임.

기존의 대도시 인근에 조성된 부산·울산 혁신도시 등이 인구 증가율, 가족 동반 이주율, 지역 인재 채용 비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대도시와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은 진천혁신도시 등은 인구 유입도 적고 가족 동반 이주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동시에 지방이전 후 경영진과 현장 사이의 공간적 괴리, 이전기관과 현지 기관의 영역 괴리, 이전 공공기관의 개방성 부족으로 초래된 시너지 창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제2기 혁신도시 정책의 목표가 단순한 균형발전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의 등장으로 국가의 성장을 이어가고, 수도권 일극집중의 폐해를 해소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고려한 경쟁거점으로서의 혁신도시 조성이 필요

○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중요

혁신도시의 성공에는 중앙정부의 의지와 법제도적 기반(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의지)이 있어야 하고, 중앙정부처를 통괄하여 추진하기 위한 통

합 추진체계(프랑스의 DATAR 등)가 필요함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노력이 매우 중요. 리옹시의 경우 교육기관 이전에 따라 청년/학생의 유입을 위해 적극적인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

또한 도시 재개발사업을 통해 신도심을 산업/업무 중심지구로 개발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기존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

리옹혁신도시청 관계자: “지방자치는 지방에 그리고 그 각 지방에 사는 국민들에 균등한 경쟁력을 부여하자는 의미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오랜 시간 중앙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나눠 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 지방분권이 무조건 지역의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중앙정부에 의존하던 시절보다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해 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긴축정책을 시행해 지자체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

○ 역량의 집결이 필요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모든 자원을 결집시킬 필요성이 있음. 리옹시의 파르디외 재개발사례처럼 각종 기능을 결집시키고, 주변지역까지를 고려한 기능강화를 추진.

각종 유관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여, 지역의 자원이 집중되도록 유도 필요

IV

부록(프랑스의 혁신도시-경쟁거점 정책 검토)

프랑스의 지방분권형 개혁과 공공기관 이전(국외출장전 사전 교육자료)

1. 추진 경위

- '50년대부터 파리 집중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지방분산시책 추진
 - 1960년부터 행정, 과학, 기술 등 공공부문의 지방이전을 추진
- 1990년 들어 크레송 정부는 공공기관 기관지방분산을 강력히 천명
 - '00년까지 행정·공공기관, 공기업(3만명)의 이전계획을 발표('90.11)
- 지방분산정책에 대한 새 대책 발표('91. 10)
 - 파리 소재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정원의 5%를 3년 안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화 계획('94.12까지 1,500명)을 각 부처가 수립토록 지시
- 2003년 헌법을 개정하여 재정자주권과 자치입법권 등을 지역에 이양²⁾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프랑스 개정 헌법 제1조는 “프랑스 국가조직은 지방 분권화해야 한다”고 명시. 프랑스에서 상급 자치 단체인 레지옹(지역)은 중급 자치단체인 데파르트망(도) 및 최하급 자치단체인 코뮌(시읍면)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지방자치단체이며 다른 지자체들에 대해 최소한의 통제도 행사할 권한을 갖지 않음

개정 헌법 제72조는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재정자주권을 강화. 다만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조정제도를 규정.

지자체에 법규 제정권을 인정하고 자치입법권도 부여. 개정 헌법(제72조 제2항, 제3항)에 근거해 중앙정부(총리)의 법규 제정권에 의한 관할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지자체의 법규 제정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 프랑스에서 지자체 조례는 법률 적용을 위한 조치,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규 제정권의 성격이 아니라 법률 집행을 위한 조치, 절차와 관련된 이차적 성격의 법규 제정권을 의미.

○ 프랑스정부는 1991년 중앙행정 지방 분산화시책 일환으로 국립 행정학교(ENA)를 비롯한 20여개 각급 공공기관을 각 지방 도시로 이전 결정. 또한 프랑스 국토관리위원회는 지방분권화 촉진,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 수도와 지방간의 균형 있는 발전, 파리근교 소외지역을 없애자는 취지아래 중앙행정. 기관을 대폭 이전

프랑스의 지역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

주요 정책 및 제도	비 고(국토계획)
1950년: 국토계획 정책수립, 국토계획전담부서 창설 1955년: 기업 입지 규제하는 건축허가(agrément), 기업유치 보조금제 신설 1960년: 파리시 및 주변지역 과밀부담금 도입	제1차 및 제2차 계획(1947-1957): 국토계획은 1950년부터 제3차계획(1958-1961)
1963년: DATAR 창설 1964년: 균형도시 정책 도입, 지역별 지원차등화, 이전보상제 1967년: 3차산업 지방분산계획, 1969년: 테크노폴 정책 추진 1973년: 중소도시육성 정책	제4차계획(1962-1965) 제5차계획(1966-1970) 제6차계획(1971-1975)
1982년: 지방분권정책 실시, 레지옹(광역지자체) 신설 1984년: 계획계약제, 산업재전환 정책 시행 1986년: 기업지구 설정	제7차계획(1976-1980) 제8차계획(1981-1985): 백지화 중간계획(1982-1983) 제9차계획(1984-1988)
1991-2000년: 지방분산 정책 강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1992년: 국가서비스재편성기본계획 수립 1994년: 새로운 유럽지역정책 시행 1999년: 지속 가능한 발전, 지역간 연대와 협력 강화 2002년: 공동서비스기본계획(SSC) 승인 2005년: DATAR가 DIACT로 확대 개편됨	제10차계획(1989-1992) 제11차계획(1993-1997): 1993년에 중단, 1995년 장기구상 방식과 부문별 계획방식 채택, 2001년에 새로운 국가계획(SSC) 채택

출처: 배준구(2006),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지방정부연구, 9(4), 171~189.

2. 추진 주체

- 국토개발장관회의(CIADT)에서 이전계획 확정
 - 각 부처별로 이전계획을 작성하여 CIADT에서 결정
- 초기에는 지방분권 위원회('55)에서 추진하였으나, '91년 이후는 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전대표단"을 신설하여 추진
 - 국가개혁 및 공무담당부처 산하 "범국토공직이전대표단"으로 전환('98)
- 위 대표단 산하에 "범국토공직이전위원회(CITEP)" 설치
 - 위원회 조직은 위원장외 11명으로 구성
 - 국토계획·도시계획·예산부 등 6개부처 파견, 지방의회 3, 전문가 2
 - 국토정비와 도시개발정책 및 공공기관의 균형배치사업 수행

※ 국토개발장관회의 : Comite interministeriel pour l'amenagement et du developpement du territoire (CIADT)

- 주요 기능
 - DATAR 주관으로 관계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국토개발과 관련한 정부당면 과제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조사, 검토를 담당
 - 국토정비개발기금(Fonds national de l'amenagement et du developpement du territoire)을 관리하며, 일반회계 예산 할당규모를 결정
- 구성
 - 일반적으로 총리 주재로 열리며 총리부재시, 국토개발 담당 장관이 주재
 - 총리 아래 국토개발, 내무, 지방단체, 경제, 농업, 시설, 교통, 산업, 고등교육, 연구, 도시, 환경, 해외영토 담당 장관들로 구성

- 긴급사안 발생시에는 총리 주재로 국토개발, 내무, 지방단체, 예산, 경제, 농업, 해외영토 담당 장관으로 축소 구성된 회의를 긴급 소집

3. 이전대상기관 및 방식

□ 이전대상기관

- 파리에 집중된 기술, 과학, 연구, 교육관련 공공기관 대상
 - 산업·상업적 성격을 가진 공공기관·공공기업 및 준국영회사 포함
- 이전기관은 타기관에 비해 이전이 용이한 것을 중심으로 선정
 - 공공시설, (물자)지원기관, 연구소와 교육기관들이 주로 선정

□ 이전방식

- 지역특성 강화를 위해 기능이 가장 잘 수행될 수 있는 지역 분산
 - 관련 기능을 일정지역에 집적시키는 전략 채택
 -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은 소규모 연구단지가 조성된 도시로 이전 (뿔루즈, 몽뻬리에, 그레노블 등)
- 동일기관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각 지역의 특성화 지원
 - 타 기능과 시너지 효과가 가능한 기능은 여러 지역으로 분리 분산

4. 이전대상지역 및 지원제도

□ 이전 지역

- 이전 대상지역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따라 선정
 - 지역의 안정화 등 중소도시의 강화를 염두에 두고 도시 선정 (깡, 끌레몽페랑 등)
 - 최소비용으로 도시경쟁력을 최대한 성장시킬 수 있는 도시를 선정 (올리앙, 브레 등)
 - 이전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을 우선 검토
 - 비교적 규모가 크고 수도와 꾸준히 교류할 수 있는 교통이 잘 발달한 지방중심도시들이 선호됨
- ※ 8대 지방중심도시 : 리옹, 마르세이유, 톨로즈, 보르도, 낭뜨, 릴르, 낭시, 스트라스부르

□ 지원제도

- 이전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 원칙
 - 이전을 통해 현대화(기능, 근무환경 개선 등)될 수 있도록 지원
 - 직원 개개인의 상황을 검토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
 - 이전기관과 이전지역 단체장이 서로 협력하여 지원대책 마련
- 보상체제 유지 : 직원의 보수 보장 및 기관의 권리 유지
- 보상금 : 이주비용·지방이주특별보상금, 배우자이전수당 등 지급
 - 이주보조금은 가족형태, 이전거리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ex) 미혼 : 1,800만원, 무자녀 가정 : 1,900만원, 자녀 2 가정 : 2,050만원

- 연수(교육) 제공 : 업무재편성 등 적응 연수(교육) 기회 제공
- 주택·주거생활 : 주택수당, 용자금 등
- 지자체가 지역공동체와 연대하여 자녀학교문제 주택문제 등 지원
- 이전을 원치 않는 직원은 타 직장알선, 부족한 인원은 현지에서 채용

5. 이전 실적 및 성과

□ 이전추진

- '91년 '93년까지 13,300여명 지방이전 승인
 - 대부분 국방부, 연구부, 우정국 소속임
- '94년 10,000명 지방 재배치 승인
 - '97.4월까지 303개 기관, 24,,285명 이전계획
- '97.12.15, 이전원칙과 방법에 대한 새 개정안 발표
 - 협조체제 강화, 비용 최소화, 고용보장 등
 - 5,200명 새로 승인
- '00.5.18, CIADT에서 '90년부터 '99년까지의 이전실적을 발표하면서, 6,300명의 직원을 이전하는 새로운 이전기관 선정
- '01.7.9, 5,000명의 직원을 이전하는 새로운 이전기관 선정
- '02.12.13, 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 이전추진정책을 재강조하면서 약 2,400명의 공직 지방이전 결정
- '03.5.26,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대외무역센터(CFCE : Centre Francais du Commerce Extetieur)의 일부를 마르세이유로 이전 결정

시 기	이전계획
1차(1991)	200개 기관 약 13,300명
2차(1994)	29개 기관 약 10,200명
3차(1997)	43개 기관 약 5,200명
4차(2000)	22개 기관 약 6,300명
5차(2001)	9개 기관 약 5,000명
6차(2002)	11개 기관 약 2,400명
7차(2003)	1개 기관 약 200명
총 계	315개 기관 약 42,600명

□ 이전실적

○ '03.6.30 현재 270개 기관 29,695명이 이전

1990년 이후 이전 주요 공공기관

지역구분	이전 도시	이전 기관
수도권	-생-드니 -부르쥬 -사르셀 -크레이 -므랭-세나르 -마른느-라-발레	-의약관리소 국립산림관리소(ONF) -경제협력중앙금고 -공군보급창 -재정경제부구매협력 체협회(UGAP) -국립교육·직업정보원 (ONISEP), 재정경제부 구매협력체협회(UGAP)
동부지역	-스트라스부르 -벨포르 -소래즈	-국립행정학교(ENA) -프랑스항행로(VNF) -프랑스석유연구원
중부지역	-리옹 -클레르몽-페랑 -오뵈송	-고등사범학교-문학 (ENS-Lettre), 실내안전고등연구소, 도로·교통·도시계획· 건설연구원, 국립국고감시관학교, 과학기술경찰부 -국립농업기계연구원 (CEMAGREF)

		-국립양탄자 및 벽지제조소
남부지역	-몽페리에 -발본느 -마르세이유 -비트롤 -투롱 -아겐즈 -투루즈	-의약관리소 -환경 및 에너지관리기관 -품질조사연구원(CEREQ) -프랑스복권협회(loto) -해군운영원 및 중앙군인정보원 -국립형무행정학교 -민간항공총국
서부지역	-앙제 -앙트 -오를레앙 -프와티에 -앙굴렘주 -리모주 -렌즈 -르망도 -보르도	-환경 및 에너지관리기관, 고등공병학교 -프랑스어외국인교육기관, 프랑스국립철도(SNCF), 체신청 사업부 -프랑스 환경연구원 -국립통신교육원(CNED), 국립교육간부학교 -담배성냥공사 -국립농업개발구조정비원 (CNASEA), 체신청 사업부 -국립통계·정보분석학교 (ENSAI) -프랑스국립철도(SNCF) -체신청 사업부
북부지역	-릴 -보베 -베틴 -루앙 -바렌시엔느 -투루코앵 -오이셀	-의약기관, 국립재산학교, 국립공업소유권연구소 본부(INPI) -국립양탄자 및 벽지제조소 -프랑스항행로(VNF) -국립교육문화정보원 (CNDP), 국립교육연구원(INRP) -국립건설기술자학교 -국립세관학교 -경찰학교

출처: 배준구(2006), 전계서. Fouché(1997), 72-79 및 Carrez(2003), 35-40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배준구(2006) 작성

□ 이전성과

인구: 수도권 인구는 1911년 12.9%(534만명), 1946년 16.2%(660만명),

1954년에 17.1%(732만명), 1960년 18.2%(827만명)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1960년대부터 그 비중이 상당히 완화되어 1962년 18.2%(847만), 1968년 18.6%(925만), 1975년 18.8%(988만), 1982년 18.5%(1,007만), 2000년 18.6%(1,095만명)로 정체(Frémy, 2001: 811; IAURIF, 2001:21-23). 프랑스 전체에 대한 지방의 도시인구 비중은 1962년 52%에서 1999년 58%로 4% 증가한 반면에 수도권 비중은 1962년 18.2%, 1999년 18.6%로 불과 0.4%만 증가(IAURIF, 2001: 20)

소득: 수도권과 지방(비수도권)간의 격차가 감소. 1960년에 수도권 주민은 소득세를 지방에 비하여 3배 넘게 납부(수도권은 1인당 354 프랑, 지방은 108프랑), 2000년에는 약 32%(수도권 약 11,000프랑, 지방 8,300 프랑)로 그 격차 축소

주민당 추가처분소득(즉 소득세와 사회보장분담금 제외)은 1982년에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33% 초과에서 1996년 23% 초과(수도권 110,800프랑, 지방 90,100프랑)로 격차 완화(IAURIF, 2001: 22)

혁신자원: 교육 및 연구 기능의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감소
고등교육 정원의 전체에 대한 수도권 비중은 1960년에 36%에서 2000년에 25%로 축소. 1960년 파리의 대학교는 78,000명(전체의 36.4%)명을 수용, 특수학교(grandes écoles)을 포함한 고등교육 수준(종합대학교 제외) 정원의 절반 이상(총 학생수 약 90,000명)을 수용. 반면에 지방 대학교 전체는 136,000명을 수용
2000년에 수도권은 전국의 25.5%인 37만 명의 대학생을 수용, 기타 특수학교를 포함할 경우 전체의 25%(전국220만, 수도권 55만 명)로 비중 감소(IAURIF, 2001: 23; 배준구, 2003: 132-136).
교육기능의 지방이전은 파리로 향하는 인구 이동의 흐름을 완화, 특히

이공계의 경우 취업도 지방으로 분산(건설교통부, 2003b).

프랑스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낭시(Nancy)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전 및 유치로 프랑스 내 대학교 밀도에서 5위(주민 100명당 10명의 대학생)를 차지

정부와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 혁신체계의 구축에 기여. 대학 및 국립연구소 등 고급인력의 지방이전은 고급 및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못했던 지방기업들에게 신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기업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Fouché, 1997: 25-28).

4. 시사점

□ 파리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지속적 추진

- 1960년대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공공기관 이전의 지속적인 추진에는 최고 정책결정자(Cresson 총리 등)의 정책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상시적 전담추진 체계 운영

- 전담 추진조직을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범부처적으로 구성하여 운용
- '91년 이후 매년 이전대상기관 및 이전지역을 선정하고, 예산 지원, 이전 추진상황 점검

□ 타 지역정책 수단과 병행 및 연계 추진

- 지역에 따라 분산적 측면에서 산업분산화 정책(산업재전환지대 및 기업지구, 보조금 및 기금 등)과 연계
- 혁신측면에서 혁신기업 유치 및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테크노폴(technopole)이나 유럽연합의 혁신프로그램을 통한 실험정책의 시행과 연계
- 지방분권적 측면에서 분권화된 계획인 계획계약과 연계하여 추진
- 2004년9월에 정부는 “경쟁거점(pole de compétitivité)” 정책과 연계하여 기업, 교육기관, 민간 및 공공연구기관들이 혁신적인 공동사업을 중심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